


한국항만물류협회  www.kopla.or.kr	<b>보 도 자 료</b>		항만물류 선진화 노사관계 건전화 하역질서 안정화 협회조직 활성화
	배포일시	2022. 12. 1(목)	배포매수 : 2매
	문 의 처	안전노무실(02-928-6686) 실 팀	장 김정규(010-8626-7631) 장 이요한(010-7199-3973)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항만물류업계 입장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지속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산업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원유·석유제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각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올해 3분기까지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전년대비 2.4% 감소하였고, 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전년대비 4% 감소하는 등 항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조차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지금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1/3 수준으로 감소하여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울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일부 항만은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하였다.

협회는 특히 우리나라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환적화물 선적에 차질이 발생하여 글로벌 선사들이 외국의 경쟁 항만으로 이탈할 경우 국내 항만물류업계의 피해는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7만여 항만 물류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가 항만 물류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즉각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붙임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항만물류업계 입장문 1부.